

‘征’, ‘伐’, ‘侵’, ‘襲’, ‘討’의 의미 특징 비교

유 현 아
(경기대학교)

1. 들어가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유의어는 ‘뜻이 서로 비슷한 말’이라 풀이되어 있다. 비슷하다는 말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면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 의거하여 보더라도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상호 교환이 가능한 절대 동의어는 존재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의어란 단어가 가리키는 개념적 의미가 서로 같거나 비슷하면서, 기타 의미나 어법의 기능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는 단어들, 즉 둘 이상의 서로 구분되는 이름(name)이 하나의 의미(sense)와 대응관계를 가질 때 형성되면서, 미세한 차이점을 가지는 단어들이라 정의할 수 있다.

古文에는 문장 修辭상의 필요, 정확한 표현 및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유의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유의어 간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게 되면,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유의어 관계에 있는 어휘는 대부분 서로 같은 의미자질의 집합이지만 의미영역이나 감정색채, 어법 기능 등에 있어서 구별이 된다. 그러므로 유의어 연구의 핵심은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에 있고, 차이점 분석은 일반적으로 의

미, 통사, 화용의 세가지 방면에서 진행되는데, 이 중 의미상의 차이점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공격하다’라는 의미항목에서 유의어 관계를 형성하는 ‘征’, ‘伐’, ‘討’, ‘侵’, ‘襲’ 5개 동사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차이점 및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유의어의 개념 정의 및 유의어 판정 방법

1. 유의어의 개념 정의

유의어를 판정함에 있어 먼저 유의어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유의어의 개념을 정의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蔣紹愚는『古漢語詞彙綱要』에서 ‘하나의 단어는 약간의 의미항목을 포함하며, 이른바 유의어란 한 개 또는 몇 개의 의미항목이 서로 같다는 것을 가리키지만 전체 의미항목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¹⁾ 즉 유의어에서 ‘같다’, ‘비슷하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의미항목에 제한된 것으로, 각각의 단어에서 하나 이상의 의미항목만 같으면 유의어로 간주하므로, 모든 의미항목이 같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²⁾ 따라서 유의어 연구는 일반적으로 단어가 아닌 의미항목을 기본 단위로 삼아야 한다.

둘째, 유의어들의 유의 관계는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같은 품사일 때 유의 관계를 따질 수 있다. 張永言에 따르면, ‘유의어는 일반적으로 같은 품사에 속한다. 품사가 다른 단어는 의미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보통 유의어로 간주하지 않는다.’³⁾

이상 세가지 조건에 기초하여 유의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유의어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언어 또는 방언 중에 한 개 또는 몇 개 이상

1) 蔣紹愚, 『古漢語詞彙綱要』, 北京大學出版社, 1989, p. 94.

2) 이영주,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218.

3) 張永言, 『詞彙學簡論』, 華中工學院出版社, 1982, p.107.

의 의미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의미항목을 가진 같은 품사의 實詞이다.⁴⁾

2. 유의어 판정방법

유의어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의어를 추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 중국어와 달리 고대 중국어는 사용자들의 어감 등에 의존할 수 없다. 따라서 자의적인 판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대중국어 유의어 판정의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대 중국어의 유의어를 판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교체(替換法)⁵⁾, 의미자질 분석, 이중검증법 등이 있다. 이 중 고대 중국어의 유의어를 판정하는데 비교적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이중검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검증법은 본증과 방증을 통해 판정하는 방법이다. 본증은 문헌의 본문 중에서 근거를 찾아 유의 관계를 판정하는 것이고, 방증은 훈고 자료를 통해 문헌의 본문 속에서 찾아 낸 유의어들에 대해 검증하는 방법이다.⁶⁾ 이 방법은 고대 중국어 유의어를 판정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上古시기에 문헌상의 출현 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공격하다’라는 의미항목을 가진 동사를 추출하여 이들 유의어군의 의미상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예문 추출의 주요 범위는 중국어의 어휘고라 칭해지고, 시기적 특성상 토지경쟁 전쟁 및 계급투쟁이 빈번했던 춘추전국시기의 시대상황, 특히 전쟁이

4) 유현아, 「『晏子春秋』詞彙研究」, 북경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p. 74.

5) 구체적인 언어 환경에서 단어에 임시 의미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임시 의미는 일정 조건 하에서 그것과 서로 유의 관계가 아닌 단어와 교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유의어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蔣紹愚는 두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으면서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을 유의어라고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두 단어가 대다수 상황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어야 유의어라고 보았다. 이러한 替換法은 현대 중국어에서 유의어를 판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판정법이라고 보겠다. 鄭振峰, 李冬鵠, 「關於古漢語同義詞研究的幾個問題」, 『語文研究』 제3기, 2006, pp.52~53 참조.

6) 鄭振峰, 李冬鵠, 「關於古漢語同義詞研究的幾個問題」, 『語文研究』 제3기, 2006, pp.52~53 참조.

국가적 대사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左傳』을 중심으로 하겠다. 아울러 『左傳』과 비슷한 시기의 문헌이면서 비슷한 전쟁고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晏子春秋』를 참고하여 예문을 보충하고, 필요시 갑골문의 예문도 참고하여 ‘공격하다’류 동사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Ⅲ. 概念義 분석

개념의는 어떠한 단어가 가리킬 수 있는 모든 지시대상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의미 특질들의 집합으로, 상황이나 사용자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하게 지니는 의미를 뜻한다. 즉 단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인식의 집합이 바로 개념의이다. 따라서 공통 의미자질이 존재해야지만 그 의미항목들이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⁷⁾

그러나 대부분의 유의어는 ‘同中有異’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념의에도 개념의 내함과 외연의 차이가 있다. 특히 연구 대상이 명사가 아닌 동사일 때는 동작행위 본연의 방식, 동작의 주체와 대상, 동작이 기반하는 사물이라는 세가지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征’, ‘伐’, ‘討’, ‘侵’, ‘襲’은 모두 군대를 출동시켜 상대방을 공격하는 군사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로서 기본적으로 그 개념의가 같으면서도 외연의 범위나 동작행위의 방식, 동작행위의 주체와 대상 등에서 미세한 차이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古書의 傳注등을 참조하여 ‘공격하다’류 동사 ‘征’, ‘伐’, ‘討’, ‘侵’, ‘襲’의 引申과정⁸⁾을 통해 개념의를 확정하고, 이들이 어떠한 변별적 의미자질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7) 張雙棣、張聯榮 등, 『古代漢語知識教程』, 北京大學出版社, 2002, pp. 166~171 참조.

8) 引申은 本義에서 출발하여 그 특징이 결정하는 방향을 따라서 서로 같거나 비슷한 뜻, 또는 서로 관련된 점이 있는 새로운 뜻이 끊임없이 파생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1. 征

갑골문에 나타난 ‘征’은 사람의 발이 어떤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본뜬 것으로 추상적인 위치 이동과정을 나타내고 있다.⁹⁾ 『說文』에는 ‘正行也°從辵, 正聲.’(바르게 가다. 辵을 따르고 正으로 읽는다)라고 字義를 풀이하고 있고, 徐鍇는 ‘謂從正道行也, 若王者行巡守正也.’(정도를 따라서 가는 것을 이르며, 왕이 巡狩를 떠나 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해하고 있다. 또 王鳳陽은 ‘征’의 古字는 사람이 먼 곳의 도움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본뜬 것으로, 本義는 ‘멀리 다른 곳에 가다’이다. 먼 곳에 가는 것을 ‘征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각종 목적을 품은 遠行일 수 있고, 그 목적 중에는 군사상의 征服, 征討를 포괄한다고 하였다.¹⁰⁾ 王鳳陽의 주장은 『爾雅·釋言』의 “征, 行也.”, 『廣雅·釋言一』의 “遠也.”라는 풀이를 통해서도 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征’은 ‘출정하다’, ‘巡行하다’의 뜻에서 ‘먼 곳을 향한 정벌’이라는 뜻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① 王征下危, 受有佑? (『甲骨文合集』6528)
(왕이 하위를 정벌하는데 보호를 받으시겠습니까?)
- ② 五侯九伯, 女實征之, 以夾輔周室 (『左傳』僖公4年)
(오후구백을 그대가 정벌하여 주왕실을 보좌하라.)
- ③ 昭王南征而不復, 寡人是問. (『左傳』僖公4年)
(소왕이 남쪽으로 순시를 나가셨다 돌아오지 못했으니, 과인은 이를 묻는 것이오.)
- ④ 不和, 不可以遠征. (『左傳』定公5年)
(조화하지 않으면 멀리 정벌할 수 없다.)
- ⑤ 行遠征暴, 勞者不疾, 驅海內使朝天子, 而諸侯不怨. (『晏子春秋』)
(멀리까지 원정을 나서서 포악한 자를 정벌할 때도 노역자들이 싫어하지 않았으며 사해로 말을 몰아 천자를 찾아 뵈게 하였으나 제후 중에 원망하는 자가 없었다.)

9) 韓劍南, 「甲骨文攻擊類動詞詞義研究」, 『成都紡織高等專科學校學報』 제27권 제2기, 2014. p.43.

10) 王鳳陽,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 1993, p. 719.

예문 ①~⑤에 쓰인 ‘征’은 모두 군사상의 정벌을 의미하고 있으며, 예문에서 ‘征’과 共起관계에 있는 목적어와 부사어 또는 문맥을 통해서 ‘征’에 [거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리]는 물리적 측면의 거리를 의미하므로 의미자질을 [+遠][-遠]으로 나눌 수 있고, ‘征’은 [+遠]의 의미자질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伐

갑골문에 나타난 ‘伐’의 자형을 살펴보면,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본뜬 것으로¹¹⁾, 구체적인 공격행위를 나타낸다. 『說文』에 ‘擊也，從人持戈.’(치다의 뜻이다. 사람이 창을 잡고 있는 모습을 따르다)라고 字義를 풀이하고 있고, 『廣雅·釋詁』에도 ‘伐，殺也.’라고 하였다. 本義는 ‘죽이다’로 처음에는 그 행위대상이 사람¹²⁾이었다가 후에 사람에서 다른 사물로 外延이 확대¹³⁾되었으며, 더 나아가 국가로 확대되면서 ‘토벌하다’의 의미로 引申되었다. 『左傳』은 토지경병 전쟁이 빈번하고 계급투쟁이 치열했던 춘추전국시대의 상황을 기록한 풍부한 전쟁고사를 담고 있으며,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전쟁이 국가적 大事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左傳』에는 ‘공격하다’의 의미항목을 가진 여러 동사들이 유의어군을 형성하는데, 이 중 ‘討伐하다’의 의미를 가진 ‘伐’은 『左傳』의 ‘공격하다’류 동사들 중 출현빈도수가 가장 높은 동사로 총594회 출현하며, 『晏子春秋』에는 23회 출현한다.

⑥ 甲申卜，爭貞：我伐馬方，帝受我祐?(『甲骨文集』6664正)

(갑신일에 점을 쳤는데, 정이 묻기를 : 우리가 마방을 정벌하려 하는데 상제가 우리를 보우할까요?)

- 11) 『甲骨文集 947正』의 “貞 自上甲侑伐，勿自上甲侑伐”라는 기록을 통해 당시 창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伐祭’라는 야만적인 제사가 있었고, 이로부터 ‘伐’의 字形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현아, 「『左傳』에 나타난 유의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 27.
- 12) 『左傳』隱公1년에 ‘段入於鄆，公伐諸鄆.’(단이 언으로 도망쳐 들어가자 공이 언에서 그를 쳤다.)
- 13) 白居易의 『煤炭翁』‘伐薪燒炭南山中’의 구절로 보건대, 개념의 外延이 뿔나무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⑦ 衛人爲之伐鄭，取廩延。(『左傳』隱公1年)
(위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정나라를 치고, 늪언을 빼앗았다.)
- ⑧ 公以楚師伐齊，取穀。(『左傳』僖公26年)
(공이 초의 군대를 이끌고 제를 쳐서 곡을 빼앗았다.)
- ⑨ 齊君之無道也，興師而伐遠方。(『左傳』昭公16年)
(제나라 임금이 무도함에 군사를 일으켜 먼 곳을 쳤다.)
- ⑩ 曲沃莊伯以鄭人 荊人伐翼 王使尹氏 武氏助之。(『左傳』隱公5年)
(곡옥장백이 정, 형나라 사람을 이끌고 익을 쳤는데, 왕이 윤씨, 무씨로 하여금 그를 돕게 했다.)
- ⑪ 景公舉兵將伐宋，師過泰山，公嘗見二丈夫立而怒，其怒甚盛。(『晏子春秋』)
(경공이 병사를 일으켜 송나라를 토벌하려고 하였다. 군대가 태산을 지나는데, 경공이 꿈에 두 남자가 서서 화를 내는 것을 봤는데 그 노기가 대단했다.)

예문 ⑥~⑪은 모두 ‘伐’의 행위대상이 국가로 ‘정벌하다’, ‘토벌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문에서 ‘伐’과 共起관계에 있는 목적어와 부사어 또는 문맥을 통해서 ‘伐’에 [거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문 ⑨는 목적어인 ‘遠方’을 통해서 ‘伐’의 공격거리에 [+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반면, 예문 ⑩에서는 문장 구성성분을 통해서는 [+遠], [-遠]의 의미자질을 밝혀낼 수 없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건대 곡옥과 익은 지리적으로 불과 100여리의 거리에 있는 가까운 나라였다. 따라서 ‘伐’은 공격 거리가 [+遠],[-遠]으로 제한받지 않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3. 侵

갑골문에 ‘侵’의 부수는 ‘牛’로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소나 말을 모는 모습을 본뜬 것인데, 예서체에서 현재의 ‘侵’자로 자형이 바뀌었다.¹⁴⁾ 『說文解字』에 “漸進也。從人又持帚。”(차츰 나아가다. 사람이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따른다)라고 자의를 풀이하고 있고, 段玉裁는 ‘侵之言駸駸也.’(말

14) 張曉耕, 「‘征’, ‘伐’, ‘侵’, ‘襲’, ‘討’, ‘攻’辨析」, 『語言文學研究』, 2014년 제1기.

이 빨리 달리는 모습을 뜻한다)라고 주해하고 있다. 갑골문의 자형 분석에 따르면, ‘侵’의 本義는 ‘가축을 방목하다’이다. 가축을 방목할 때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므로, 자형의 변화와 더불어 의미상으로도 ‘점차 진입하여, 점차 확장하다’라는 引申義가 나타났다. 이처럼 동작행위 대상의 외연이 ‘소’에서 ‘영토’로 확대되어 다른 나라에 공격성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됨에 따라 ‘쳐들어가다, 침범하다’의 의미로 인신되었다. 갑골문에 ‘공격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총 4회이고, 『晏子春秋』에는 2회, 『左傳』에는 141회 출현한다.

- ⑫ 土方侵我西鄙. (『甲骨文合集』6059)
(토방이 우리 서쪽 변방을 침범하였다.)
- ⑬ 地侵于齊, 貨竭于晉, 是以亡也. (『晏子春秋』)
(땅은 제나라에 침범을 당하고, 재물은 진나라에 짜임을 당하니, 이로써 멸망할 것이다.)
- ⑭ 齊侯以諸侯之師侵蔡. 蔡潰, 逐伐楚. (『左傳』僖公4年)
(齊侯가 제후의 군대를 이끌고 채를 침략하여 채가 붕괴되자 마침내 초를 쳤다.)
- ⑮ 夏, 狄有亂, 衛人侵狄, 狄請平焉. (『左傳』僖公32年)
(여름에 적에 난리가 있었다. 위가 적을 침범하니 적이 화친할 것을 청했다.)
- ⑯ 鄭厲公自櫟侵鄭, 及大陵, 獲傅瑕. (『左傳』莊公14年)
(정 여공은 약 땅에서 정에 침입하여 대릉에 이르러 부하를 잡았다.)
- ⑰ 二十八年春, 晉侯將伐曹, 假道於衛. 衛人弗許. 還, 自河南濟. 侵曹伐衛. (『左傳』僖公28年)
(28년 봄에 진후가 조를 치고자 위에 길을 빌렸으나 위가 불허하였다. 돌아와서 황하의 남쪽에서 황하를 건너 조를 침략하고 위를 쳤다.)

예문 ⑫~⑰의 ‘侵’은 ‘침범하다’라는 군사상의 공격을 나타내는 ‘공격하다’류 동사이다. 동작행위의 대상은 국가이고, ‘侵’과 共起관계에 있는 목적어와 개사구 또는 문맥을 통해서 [거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⑯에서 櫟땅은 鄭나라 안의 지역으로 여공의 망명지이다. 개사구와

문맥을 통해 보건대, 櫟은 정나라 변경에 위치한 정나라 땅이므로 거리상 [-遠]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예문 ⑰은 쯤나라와 曹나라는 衛나라를 사이에 두고 있고 황하의 흐름이 동북 방향이므로, 개사구인 ‘白河南濟’의 문맥으로 보건대 ‘侵’에는 [+遠]이라는 공격의 거리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侵’은 공격 거리가 [+遠],[-遠]으로 제한받지 않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4. 襲

‘襲’은 『說文』에 “左衽袍.”(옷깃자락을 왼쪽으로 하다), 『十三經注疏·左傳』에는 “襲者, 重衣之名.”라고 풀이되어 있다. 本義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왼쪽으로 옷깃을 여민 외투이다. 이로부터 ‘옷을 덧입는다’는 뜻으로引申되고 다시 ‘엄습하다, 급습하다’의 뜻이 파생되었다.

『淮南子·汜論訓』의 ‘秦穆公興兵襲鄭.’(진 목공이 군사를 일으켜 정을 습격하려 했다), 『呂氏春秋·悔過篇』의 “蹇叔諫曰, 不可. 臣聞之, 襲國邑, 以車不過百里, 以人不過三十里. 皆以其氣之趨與力之盛. 至, 是以犯敵能滅, 去之能速.”(남의 나라 도읍을 습격함에 전차로는 백리를 넘지 않고 사람으로는 삼십리를 넘지 않는다. 군사의 사기가 씩씩하고 힘이 왕성하게 하여 도착하게 되므로, 이로써 적을 쳐서 멸망시킬 수 있고 물러나는 일도 신속히 할 수 있다)이라고 하였다. 즉 ‘襲’은 전투에서 상대방을 급습하거나 비밀리에 공격하는 것을 뜻하며, 적은 군사로 상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서 몰래 접근하여 돌연히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므로 [거리]와 [속도]의 개념이 포함된다. 『左傳』에 24회 출현한다.

- ⑱ 繕甲兵, 具卒乘, 將襲鄭, 夫人將啟之.(『左傳』隱公1年)
(갑옷과 무기를 손질하고, 군대와 전차를 갖춰 정을 습격하려 하는데, 부인이 성문을 열어놓으려고 하였다.)
- ⑲ 師還, 館于虞, 遂襲虞, 滅之.(『左傳』僖公5年)
(진의 군사가 돌아오는 길에 우에 머물렀다가 마침내 우를 습격해서 멸망시켰다.)
- ⑳ 衛唯信晉, 故師在其郊而不設備. 若襲之, 是棄信也.(『左傳』成公6年)
(위나라는 오직 진나라만을 믿고 있었으므로 군사들이 교외에 있으면

서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 만약 그들을 습격한다면 그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 ㉑ 勞師以襲遠,非所聞也. (『左傳』僖公32年)
(군사를 피로하게 하여 먼 곳을 습격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㉒ 爲一昔之期, 襲梁及霍.(『左傳』哀公4年)
(하루 저녁으로 정하여 양과 곽을 습격하였다.)

예문 ㉑~㉒의 ‘襲’은 ‘기습하다’, ‘습격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로 사용되었다. 습격하는 동작행위의 대상은 국가이며, 공격하는 기타 성분이나 문맥을 통하여 [거리], [속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예문 모두에서 습격하는 대상인 목적어를 통해서 ‘襲’이 [-遠]의 의미자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예문 ㉒의 ‘爲一昔之期’를 통해서 ‘襲’의 공격 속도와 진행이 [+快]의 의미자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討

‘討’는 『說文』에 “治也, 從言寸.”(다스리는 것이다.言과寸을 따른다)라고 자의를 풀이하여 ‘말로써 법에 따라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段注에는 ‘發其紛糾而治之曰討’(분란이 생기면 다스리는 것을 討라고 한다)라고 주해되었다. 따라서 本義는 ‘다스리다, 훈계하다’이다. 『孟子·告子下』에 ‘天子討而不伐.’(천자는 죄를 추궁하되 공격하지 않는다)라 하였고, 이에 대한 朱注는 ‘討는 명령을 내려 그 죄를 성토하고 방백과 연수로 하여금 제후를 거느리고 정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討’는 아랫사람들을 훈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고쳐 경계할 줄 알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차츰 그 죄를 성토하면서 공격하는 용어로 변화하였고, 토벌하는 대상 또한 내부 범죄자에서 국가로 확대되었다. 『左傳』에 총 124회 출현한다.

- ㉓ 秋, 伐陳, 討不忠也. (『左傳』僖公4年)
(가을에 진을 친 것은 불충함을 토벌한 것이다.)
- ㉔ 叛而不討, 何以示威? (『左傳』文公7年)
(배반하였는데도 토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위엄을 보이시겠습니까?)

- ㉕ 鄭人伐衛，討公孫滑之亂也。(『左傳』隱公2年)
(정이 위를 친 것은 공손활의 난을 토벌한 것이다.)
- ㉖ 齊師侵我西鄙，討是二盟也。(『左傳』僖公26年)
(제의 군사가 우리 서쪽 변방을 침략하였는데 이는 두 번 맹약한 것을 토벌한 것이다.)

예문 ㉓~㉖의 ‘討’는 ‘성토하다, 토벌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었다. 동작 행위의 대상은 내부 범죄자에서 차츰 국가로 외연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고, 上下文에 공기하는 동사들을 통해 보건대 ‘討’는 대체로 죄를 성토하는 의미에서 군사행동을 일으키므로 ‘伐’, ‘侵’ 등의 동사와 함께 쓰인다. 따라서 ‘討’는 공격 거리가 [+遠], [-遠]으로 제한받지 않는 동사이고, 아울러 동작행위의 주체는 도덕성 및 정의성을 가진 자임을 추론할 수 있다.

IV. 色彩義 분석

감정색채란, 語義 중에 내포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물에 대한 평가나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다.¹⁵⁾ 찬양의 색채를 가진 단어는 褒義語라 하고, 비난의 색채를 가진 단어는 貶義語, 褒貶의 색채가 없는 단어를 中性語라고 한다.

褒貶의 색채를 띤 단어는 造詞法과 用詞法이라는 두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전자에 의해 만들어진 포핼어는 그 감정색채가 단어 자체에 고유한 것이고, 후자를 통해 만들어진 포핼어는 그 감정색채가 語義의 발전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공격하다’류 동사들은 대부분 사회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요소에 의한 用詞法을 통해 만들어진 포핼어들이다.

1. 褒義語

1) 征

신분등급이 엄격했던 상고에는 친자가 제후를 공격할 때, 정의로움이 정

15) 高守綱, 『古代漢語詞義通論』, 語文出版社, 1994. p.26.

의롭지 못함을 공격하거나 정통이 비정통을 공격하는데 ‘征’자를 쓸 수 있었다. 따라서 ‘정벌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征’의 행위주체는 [+上]이다. 아울러 ‘征’은 공격할 때 항상 상대방의 죄상을 선포한 후에 출사하는 전쟁을 나타내는 데 쓰였고,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하고 공격하는 정식 전쟁이므로 진군할 때 종과 북을 울린다.

- ㉗ 五侯九伯，女實征之，以夾輔周室。(『左傳』僖公4年)
(오후구백을 그대가 정벌하여 주왕실을 보좌하라.)
- ㉘ 德刑、政事、典禮，不易，不可敵也，不為是征。(『左傳』宣公12年)
(〔초나라의〕 덕, 형벌, 정치, 일, 법, 예가 바뀌지 않으면 대적할 수 없으니 정벌하지 않는다.)

예문 ㉗은 천자국인 주왕실을 보좌하라는 명분으로 정벌의 정당성을 명시함으로써 ‘征’의 행위를 찬양하였다. ㉘은 초나라가 有道로써 다스려지고 있으므로 정벌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征’은 有道가 無道를 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褒義語임을 알 수 있다.

2) 討

‘討’는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공격하는데 쓰였다. 또한 『孟子·告子下』에 ‘天子討而不伐，諸侯伐而不討’에서 알 수 있듯이 ‘討’는 이치가 정당하고 엄숙한 말로써 상대방의 죄상을 책망하며 공격하는 공개적인 군사 행동이며, 행위주체는 [+上]이다.

- ㉙ 公曰，君謂許不共，故從君討之。(『左傳』隱公11年)
(공이 말하기를 그대가 허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고 하기에 그대를 따라 그를 토벌한 것이다.)
- ㉚ 夏徵舒爲不道，弑其君，寡人以諸侯討而戮之。(『左傳』宣公11年)
(하정서가 부도하여 그 임금을 시해하였기에 과인이 제후를 거느리고 그를 토벌하여 죽였다.)

예문⑳는 토벌대상이 모두 주 천자에 대해 불경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행위주체가 상대방의 죄상을 이유로 정당한 군사행동을 일으킨 것이고, ㉑은 주 천자가 하징서의 부도한 행위를 토벌한 것이다. 따라서 ‘討’는 군사행동의 명분이 정당하고 정의성을 갖는 행위를 찬양하는 포의어이다.

2. 貶義語

3) 侵

『左傳·莊公29年』에 “凡師有鐘鼓曰伐，無曰侵，輕曰襲.”(무릇 군사에 종소리와 북소리가 있으면 伐이라 하고, 없으면 侵, 적은 군사로 치면 襲이라 한다)이라는 구절을 통해 ‘伐’, ‘侵’, ‘襲’ 세 동사의 공격 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侵’은 선전포고하지 않고 시작하는 공격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격을 알리는 종과 북을 쓰지 않고 선전포고 없이 군사 공격한다. 이러한 공격의 목적은 대부분 약탈하기 위해서이다.

- ㉒ 四年春，齊侯以諸侯之師侵蔡，蔡敗，逐伐楚。(『左傳』僖公4年)
(4년 봄에 제나라 군주가 제후의 군대를 이끌고 채를 침략하여 채가 패하자 마침내 초를 공격하였다.)
- ㉓ 狄人聞宋之盟以侵晉，而不設備。(『左傳』成公12年)
(적이 송에서의 맹서를 틈타 진을 침략하였다.)
- ㉔ 楚白公之亂，陳人恃其聚而侵楚。(『左傳』哀公17年)
(초 백공의 난리에 진은 모은 군량을 믿고 초를 침략했다.)

예문을 살펴보면, 난리나 망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침략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예문 ㉒을 통해서 ‘侵’과 ‘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채나라를 공격하는데 ‘侵’을 쓴 것은 채나라가 단지 초나라의 동맹군일 뿐, 공격의 목표가 아니므로 선전포고하지 않고 공격하였음을 나타내고, 동사 ‘伐’의 사용을 통해 채나라를 패배시킨 후 초나라에 정식으로 선전포고한 후 행해진 공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侵’은 그 행위가 정당하지 못함을 비난하는 감정색채를 갖는 폄의어이다.

4) 襲

‘襲’은 남이 준비되지 않은 틈을 타서 몰래 접근하여 갑자기 공격을 개시하는 것으로 ‘侵’보다 더 비밀스러운 군사행동을 뜻한다. 따라서 선전포고하지 않고 종과 북도 쓰지 않는 기습전의 성격을 갖으며, 행위의 시작이 정당하지 못하다.

㉟ 繕甲兵，具卒乘，將襲鄭，夫人將啟之。(『左傳』隱公1年)

(갑옷과 무기를 손질하고, 군대와 전차를 갖춰 정을 습격하려 하는데, 부인이 성문을 열어놓으려고 하였다.)

㊱ 衛唯信晉，故師在其郊而不設備。若襲之，是棄信也。(『左傳』成公6年)

(위나라는 오직 진나라만을 믿고 있었으므로 군사들이 교외에 있으면서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 만약 그들을 습격한다면 그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㊲ 舒庸人以楚師之敗也，道吳人圍巢，伐駕，圍厘，遂恃吳而不設備。楚公子囊師襲舒庸，滅之。(『左傳』成公17年)

(서용국 사람들은 초나라 군대가 언릉의 싸움에서 패했으므로 오나라 사람들을 끌어들여 초나라의 소고을을 포위하고 가를 쳤으며 이, 횡을 포위하였는데, 오나라를 믿고 초나라에 대한 경비를 하지 않았다.)

예문 ㉟는 공숙단이 형의 나라인 鄭을 몰래 기습하려 함에 그 어머니가 몰래 성문을 열어 놓기로 내통하였으므로, 그 행위를 비난하는 색채를 띠고 있다. 예문 ㊱과 ㊲ 또한 그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며 문맥을 통해서 ‘襲’의 행위를 비난하는 색채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襲’은 폄의어이다.

3. 中性語

5) 伐

陳年福에 따르면 갑골문에서 ‘伐’은 대부분 殷이 方國을 공격할 때 사용되었으나, 方國이 殷을 공격할 때도 사용한 예가 몇 차례 보인다고 하였다. 16) 선진시기 문헌에는 제후국 사이, 즉 동등한 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전

16) 陳年福, 『甲骨文動詞詞彙研究』, 巴蜀書社, 2001, p.21 참조.

쟁에 사용하였다. 이로부터 보건대, ‘伐’은 공격 행위주체에 제한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左傳·莊公29年』의 ‘伐’에 대한 공격방식 정의에 근거하여 볼 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하고 시작되는 정식 전쟁이며, 진군할 때 반드시 종과 북을 울림으로써 군사 행동이 공개적임을 표명하였다.

- ㉘ 十年春，齊師伐我。(『左傳』莊公10年)
(10년 봄에 제나라 군사가 우리 노나라를 쳤다.)
- ㉙ 十四年，春，諸侯伐宋。(『左傳』莊公14年)
(14년 봄에 제후가 송나라를 공격했다.)
- ㉚ 夏，齊伐厲，不克，救徐而還。(『左傳』僖公16年)
(여름에 제가 여나라를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서를 구원하고 돌아왔다.)

이상의 예문에서 伐은 제후국 간에 행해진 일반적인 공격행위를 나타내며, 행위에 대한 찬양이나 비난의 색채를 띠지 않으므로 중성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나가는 말

이상의 분석을 통해 ‘征’, ‘伐’, ‘討’, ‘侵’, ‘襲’ 5개 동사의 의미상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1. ‘征’은 동작행위의 거리가 [+遠]이고, 행위주체의 신분이 [+上]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가진다. 행위 대상인 목적어가 국가 또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먼 곳에 대한 정식의 공개성 전쟁임을 나타내는 포의어이다.

2. ‘伐’은 동작행위의 거리, 행위주체와 대상과의 관계가 특정한 제한을 받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공격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목적어 선택의 범위 및 전쟁의 규모도 광범위하면서 포범의 의미를 갖지 않는 중성어이다.

3. ‘侵’은 동작행위의 거리 및 행위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에 특정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목적어의 선택 범위가 국가 및 지역으로 제한되고 공격방식

이 비공개적인 전쟁의 형태를 의미하는 폼의어이다.

4. ‘襲’은 동작행위의 거리가 [-遠]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행위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에 특정한 제한을 받지 않는 기습적인 공격을 의미하므로 [+快]의 의미자질도 함유한 기습진, 돌격진을 뜻하는 폼의어이다.

5. ‘討’는 동작행위의 거리상에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위주체는 반드시 [+上]이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행위대상인 목적어에 국가나 사람을 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정식 전쟁을 의미하고 항상 정당한 이유에서 시작되는 공개적인 군사행동을 나타내는 포의어이다.

이상으로 선진시기에 ‘공격하다’의 의미를 가진 ‘征’, ‘伐’, ‘討’, ‘侵’, ‘襲’ 5개 동사를 의미상의 차이점 분석에 중점을 두고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귀납해 내었고 이를 통해 고대 중국어 연구에서 유의어 연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시간과 편폭의 제한으로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다섯 동사에 제한하였지만, 향후 ‘공격하다’의 의미항목을 가진 또다른 유의어군을 추출하여 이들 동사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공격하다’류 동사들의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한 고대 전쟁문화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이영주,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유현아, 「『左傳』에 나타난 유의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_____, 「『晏子春秋』詞彙研究」, 북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楊伯峻, 『春秋左傳注全四冊』, 中華書局, 1981.
王鳳陽,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 1993.
陳克炯, 『左傳詳解詞典』, 中州古籍出版社, 2004.
沈玉成, 『左傳譯文』, 中華書局, 1981.
張永言, 『詞彙學簡論』, 華中工學院出版社, 1982.

- 張雙棣, 『呂氏春秋詞彙研究』, 山東教育出版社, 1989.
- 張雙棣·張聯榮等, 『古代漢語知識教程』, 北京大學出版社, 2002.
- 蔣紹愚, 『古漢語詞彙綱要』, 北京大學出版社, 1989.
- 高守綱, 『古代漢語詞義通論』, 語文出版社, 1994.
- 管燮初, 『左傳句法研究』, 安徽教育出版社, 1994.
- 毛遠明, 『左傳詞彙研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9.
- 葉蜚聲·徐通鏘, 『語言學綱要』, 北大出版社, 1997.
- 陳年福, 『甲骨文動詞詞彙研究』, 巴蜀書社, 2001.
- 洪成玉, 「古漢語同義詞及其辨析方法」, 『中國語文』第6期, 1983.
- 符淮青, 「同義詞研究的幾個問題」, 『中國語文』第3期, 2000.
- 鄭振峰, 李冬鵠, 「關於古漢語同義詞研究的幾個問題」, 『語文研究』제3기, 2006.
- 張曉耕, 「‘征’, ‘伐’, ‘侵’, ‘襲’, ‘討’, ‘攻’辨析」, 『語言文學研究』, 2014년.
- 韓劍南, 「甲骨文攻擊類動詞詞義研究」, 『成都紡織高等專科學校學報』제27권 제2기, 2014.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Semantic Features
about ‘zheng’, ‘fa’, ‘qin’, ‘xi’, ‘tao’

Yu Hyuna

Synonym means that the conceptual meaning of the word is the same or similar while other meanings or function of language difference may exist. That is two or more identified names correspond with one sense and have the words with minor difference.

Words with synonym relation are a set of same meaning but conceptual area or emotional color, language function can be identified. Therefore, the core research of synonym is the difference analysis and in general difference analysis is progress in the three aspects of Meaning, Pragmatic, and Semantic. However, the difference analysis is the most important.

In this paper, the set of meaning item of synonym word ‘Attack’ is 'zheng', 'fa', 'tao', 'qin', 'xi'. We compare the meaning of five verbs and analyze the difference and characteristics.

Key Words

유의어, 의미론, 의미자질, 공격하다 동사, 차이점 분석

Synonym, Semantics, Semantic feature, attack [verb], the difference analysis

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6일